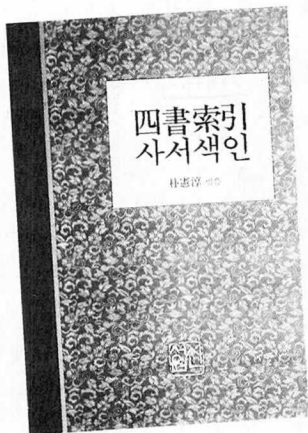


文句 중심의 사전식 색인집

박현순 엮음 「四書索引」



의 피난이 임성렬씨는 전한다. 이에 비해 이 책은 “구절” 중심의 색인집이다. 예를들어 “學而時習之” “君子不器” 등이 표제어가 된다. 그리고 그 표제어는 朱子의 註를 기준으로 편·장·절(篇章節)구분을 하여, 어느 판본의 「사서」이든지 활용이 가능토록 구성되었다.

이들테면 공자가 ‘色’에 대해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알아보려면 우선 그 글자를 찾는다. “색(戒之在色) 논 / 16 / 7.1”이라는 표제어가 나온다. ‘논어’ ‘季氏’ 편 7장 1절을 찾으면, 공자의 ‘色觀’을 접하게 된다. “젊을 때 혈기가 잡히지 않아서 경계할 것은 女色에 있다”는 것. 그러나 한번쯤 ‘논어’를 번역본으로나마 숙독해 본 이라면 “好色”이란 句를 떠올릴 것이다. “호색(吾未見好德如好色者也) 논 / 15 / 12.1.” “나는 여지껏 色보다 德을 좋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구절이 나온다.

이 「사서색인」은 「四書集註索引」을 위한 1차작업의 결과라고 엮은이는 머리말에서 밝힌다. 그는 이어 “한문사전과 한문고전 색인은 한글음 가나다 배열을 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논지를 편다. 부수·획수 배열을 한 한자사전은 너무도 비실용적이며 교육용으로만 필요하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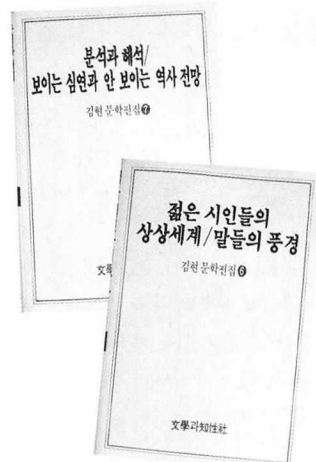
좋은 사전과 좋은 색인이 부족한 우리나라 학문풍토에 「사서색인」은 자양분 넘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자자하다. 신서원/B5/490면/9000원

當代의 한학자들이 唐代의 학자들보다 「四書」에 대한 이해수준이 저열하리란 관념은 표피적인 선입견에 불과할 것이다. 唐代의 그들이 「사서」를 통째로 암기했다고 가정해도 지금은 굳이 외우지 않고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하고도 고급한 정보와 자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工具書」가 그것인데, 그중 「四書索引」도 이제 추가되었다.

현대 민족문화추진회 전문위원인 박현순씨가 엮은 「사서색인」은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의 본문을 임의의 구절로 나누고, 나누어진 구절에서 추출 가능한 어휘는 모두 뽑아 한글음으로 바꾸어 가나다 배열을 한 일종의 ‘사전’이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사용한 색인은 미국 하버드대 연칭연구소에서 출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學’ ‘君’ 등과 같이 각 글자에 대한 색인집이라고 「사서색인」

작고 평론가 김현 문학전집

「젊은 시인들의 상상세계」외



김현(1942-90)의 1주기를 맞으며 기획된 「김현 문학전집」(전16권 예정) 중 제6권 「젊은 시인들의 상상세계 / 말들의 풍경」, 제7권 「분석과 해석 / 보이는 심연과 안 보이는 역사전망」, 제10권 「폭력의 구조 / 시칠리아의 암소」가 출간되었다.

「젊은 시인들의 상상세계 / 말들의 풍경」은 그의 후기와 말년의 시인론과 시론 들로 묶였다. 「젊은 시인들의 상상세계」는 80년대초에 잔인한 현실을 견뎌내며 써낸 것들. 그 시기에 ‘폭력론’과 ‘욕망의 인간론’으로 사고를 집중시켰던 그의 사유의 궤적이 드러나 있다. 80년대말 90년대초에 쓰여진 「말들의 풍경」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자각하고 응시하며 시읽기에서 삶의 운명을 예감하는 그의 내면이 표출돼 있다.

전집 제7권 「분석과 해석 / 보이는 심연과

안 보이는 역사전망」은 죽음을 앞둔 그의 문학적 사유가 드러난다. 시론·소설론·문학론이 뒤섞인 이 부분은 역사적 상처와 육체적 병들의 고통스런 자의식 속에서 죽음의 시원성에 대한 그의 투명한 사유가 스며들어 있다. 「분석과 해석」은 「책읽기의 괴로움」 이후 80년대 중반에 씌어진 실제비평집. 작품의 섬세한 분석을 통해 그것들의 의미를 해석해내는 원숙한 정신이 일구어낸 비평집으로 제1회 팔봉비평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한 책이다. 「보이는 심연과 안 보이는 역사전망」은 「분석과 해석」 이후에 씌어진 것들로 「말들의 풍경」 제2부에 수록된 것을 옮겨서 새로 이름을 붙인 부분이다. 욕망과 육체, 아픔과 사랑에 대한 따뜻한 명상들로 가득하다.

전집 제10권은 그의 말년에 이루어진, 프랑스 사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업적 두 권을 묶은 것. 「폭력의 연구」는 우리에게 문학적론가로만 알려진 르네 지라르의 저서들을 통독하고 그의 인류학·철학·사회학까지를 포괄하여 사회적 폭력의 기원을 끈질기게 탐색한 노작으로 비교적 짧은 23편의 글들로 구성돼 있다. 미셀 푸코에 관한 연구서인 「시칠리아의 암소」는 김현 생전의 마지막 저서이다. 억압없는 사회와 권력의 문제를 푸코를 통해 천착하는바, 지라르에 이어 권력의 문제가 그가 살며 겪어야 했던 그의 시대에 대한 마지막 성찰의 주제였다는 예시를 이룬다.

문학과학지성사/A5신/각 340면 내외/각 8500원

운동생체역학

D.A.Winter 저, 강근 역, 신국판, 4,500원

이 책은 의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생체역학의 기초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에서 번역되었다. 따라서 기계공학, 전자 및 전기공학을 배우는 학생들도 역시 큰 어려움이 없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생리학, 재활의학을 비롯한 인체(환자)의 움직임을 계속하여 관찰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본적인 공학적 지식을 전달하는데 도움이 된다.

토질역학

윤충섭 외 8인 공저, 4.6배판, 양장, 12,000원

이 책은 여러 저자들의 오랜 강의경험과 고도의 실무기술을 습득한 기술자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집필된 것으로, 한계상태의 개념이나 토질동역학 문제와 같은 새로운 이론과 이와 관련된 실험법을 요약하여 다루었다. 유효응력과 지중응력분포에 대한 것을 앞장에 두어 압밀, 전단, 토압 등의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초지반 처리에 필요한 사항도 첨가하였다.

국제정치학

송영우 저, 신국판, 350면, 6,500원

오늘날 국제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국제정치를 조망해야 그 현상을 잘 파악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국제환경의 변화는 더이상 군사력만으로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해결하는 것이 어렵게 됨을 지적하고 경제에 기초한 시각에서 국가의 행위, 국가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해야 오늘날의 세계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현대인의 식생활과 건강

송병춘·맹원재 공저, 신국판, 316면, 5,500원

이 책은 식생활이 점차 풍요로워지고 또 서구화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영양섭취의 불균형과 잘못된 식습관이 유발시키는 각종 영양성 질병과 성인병의 발병원인을 쉽게 설명하고 또 올바른 식생활을 통해 이를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경국대학교출판부 서울특별시 성동구 모진동 93-1
도서주문 450-3893 FAX: 457-7202

달리 번역한 고전경제학의 명저

애덤 스미스의 「國富論」들



리카르도, 마르크스, 케인즈의 저작과 더불어 경제학의 4대 고전 중의 하나로 '공인' 되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범우사와 동아출판사에서 번역출판되었다. 역자는 각각 최호진(현 학술원 회원)·정해동(전 중앙대)교수와 김수행(서울대 경제학과)교수.

「국부론」 이전의 경제학은 계통 없는 산만한 자료에 불과하였으나 스미스 이후 사회과학으로 정립·체계화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부론」 이전의 경제학은 「국부론」의 서문이고, 그 이후의 경제학은 그 후편 내지 속편이라고 운위된다.

애덤 스미스의 평생의 역작인 이 책은 다섯 편으로 구성된다. 1, 2편의 '경제이론', 3편의 '경제사', 4편의 '경제정책', 5편의 '재정학'으로 구성된 「국부론」은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손"의 시장원리를 신

리한다.

그 동안 「국부론」 역서는 세 종류가 나왔다고 알려진다. 그중 최호진·정해동 교수에 의해 초역되어 62년 춘조사에서 간행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본판을 번역원본으로 삼은 까닭에 용어와 문체 상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에 A.스미드 연구에만 몰두한 정해동 교수는 이후 개역을 거듭해 충실한 번역과 원서 해당 부분의 표기 등으로 이번 개역판에서 학자적 양심과 고집을 관철해낸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김수행 교수는 번역의 동기와 목적을 "독자들에게 경제학의 최초의 문제의식을 알게 되는 계기를 줄 뿐 아니라 마르크스의 고전파경제학 비판을 제대로 이해하는 계기를 주기 위함"이라고 '역자서문'에서 밝힌다. 그에 의하면, 스미스가 살아있다면 복지국가의 해체, 빈부의 격차, 실업의 누적, 인종·패권주의에 대해 큰 탄식을 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외칠 것이라고 한다. "나는 결코 부르주아 경제학자가 아니다"라고.

두 번역본의 '제1편' 제목은 각각 다음과 같다. "노동의 생산체력의 개선의 제원인과 그 생산물이 국민의 여러 계급들 사이에 자연적으로 분배되는 질서에 대하여", "노동생산력을 향상시키는 원인들과 노동생산물이 상이한 계급들 사이에 자연법칙에 따라 분배되는 질서" 범우사/A5신/각 608면/각 9000원

동아출판사/A5변형/각 480, 470면/각 9500원

미국 철강왕의 처세술 개론서

고려원 펴낸 「카네기인생지침서」 전6권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85%의 대인관계와 15%의 지식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다 한다. "정신적인 자살을 범한" 사람들이 빼면 사회 속의 인간들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한 처세술을 매우 중요시한다. 국내에서 이미 발간된 수십 종의 "인생지침서"와 「처세술개론」이 그것을 증거한다. 그중 카네기의 책들이 가장 많은 중수를 차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카네기 인생지침서」는 일본에서 200만부가 판매되었고 세계적으로 1천 4백만부 이상 팔린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파산 직전의 크라이슬러사를 부활시켰던 아이아코카도 경영자로서의 성공이 이 책 덕분이었다고 고백했으며, 코카콜라와 코닥, 포드 등 미국내 1천여 대기업들이 연수 교재로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출간된 「카네기 인생지침서」는 국내

외에서 발간된 그의 저서들을 종합·정리한 것으로 카네기의 "인생철학"의 전모를 보여준다. '건강한 상식인'에게는 현실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완벽한 철학이며 지혜의 보고가 되어 줄 이 책은 그리하여 "삶의 조인자" 또는 "생활의 이정표"가 될 만하다고 옮긴이 손풍삼(국제사회문제연구소장)씨는 적어놓았다.

이 책은 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카네기의 '행복론'인 「인생은 살 만한 것이다」, '행동철학'인 「인생은 행동이다」, '대화술'인 「한마디 말로 천냥 빛을 갚는다」, 「인간관리론」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라」, 「기업경영론」인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 「명언록」인 「절망은 없다」가 그들이다. 5권까지는 인생에 관한 명징한 분석으로 가득하다. 행복과 행동, 대화 그리고 인간관계, 기업가를 위한 경영론이 포함되어 있다. 경영관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로부터 계획을 세우는 법, 조직을 구성하는 법, 효율적인 지시체계, 나아가 인간을 살리는 기업론까지가 명징한 문장으로 펼쳐진다. 마지막 6권은 저자가 수집한 동서고금의 주옥 같은 명언들로 채워져 있다. 각 권의 앞부분에는 이 책을 읽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기술되어 있다.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부터 어떤 부분을 읽을 때 밑줄을 그어야만 하는지까지, 그야말로 책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테크닉을 낱알이 일어준다.

역자는 "우리를 이끌어갈 마땅한 가치관을 상실한 현대사회에서 이 책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지혜는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밝힌다.

고려원/A5신/각 310면 내외/각 5500원



어린이들은 참으로 부자입니다.

어린이들은 그 아름다운 세계— 꿈과 환상을 어른들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의 꿈을 들여다 보는 일은 어른이 되어버린 나에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그림을 그리는 일련의 작업들을 통하여 그들의 아름다운 꿈을 조금만 나누어 가지려 합니다.

남·숨·꿈

동화·광고 일러스트 & 복 디자인
일러스터 한 태 희
주소: 100-272 서울시 중구 필동 2가 19-11
TEL·FAX: (02) 263-6090
호출: 012-221-7445 (자택) 814-1759